市 "인공지능 선도" 道 "소재부품 육성"

李시장 "4차 산업혁명, 日 뛰어넘는 기회…'AI 추진단' 발족"
金지사 "아베정부 '경제 침탈'…수출 다변화 등 극일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이달 중에 가칭 '인공지능 추진단'을 발족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에 150만 광주시민은 한없이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하고 단호해져야 하고, 분노와 규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해법이다"며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 차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경제철학과 질서가 완전 재편되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차선을 바꾸고 일본을 추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광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회대통합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AI 대표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매진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중앙정부와 함께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비전과 청사진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가 오히려 일본을 이기고 극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국가 정책에 맞춰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수산물 수출을 다변화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교류협력 문제를 서로 별개로 하는 암묵적인 선의의 협약 비슷한 내용이 존재했는데 일본 아베정부가 이번 '경제 침탈'을 자행하면서 그 선을 넘어섰다"며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은 단순한 경제 제한을 넘어 주권국가의 굴복을 받겠다는 식의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리 없는 경제 전쟁에 국민들이 공분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고맙고 든든함을 느낀다"며 "100대 핵심 전략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 등 정부 대책에 발맞춰 전남에서도 그동안 취약했던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은 어떻게든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므로 농수산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통과 등 검역 강화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공공급식 판로 확보에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김재정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갖고, 지역 기업인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복지시설 대표자 퇴직적립금 부당' 처분 취소

市 감사위, 재심의 요청 취소 결정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보조금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받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해 적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으로 교부한 퇴직적립금 총 2억2천947만원을 환수 등 적절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복지시설의 대표자들은 광주시가 퇴직적립금 지원 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재심 결과 국가기관에는 명확한 환급 규정이 있으나 자치단체에는 규정이 없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조치 사항을 취소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심의를 받아들인 데 대해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다이 기자

外교부 "필요하면 日 여행경보 발령"

'소녀상 전시' 철거에는 "피해자 치유 반하는 행위"

외교부는 6일 여권에서 일본 지역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여행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에게 '일본 내 혐한 집회·시위 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 발송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개막 사흘 만에 강제 중단된 데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에 반(反)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연합뉴스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세계경제 파장

94년 이후 처음…"中, 외환시장 개입 통해 통화절하 오랜 역사"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냄으로써 미중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위적인 환율개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투 자 하실분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또 발사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 발사한 발사체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은 6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 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이날 발사는 북한 동부에서 바로 동해상으로 발사한 최근 사격과 달리 북한 서쪽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로 발사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公認 國家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19. 8. 1(목)~9. 7(토)	
수업기간	2019. 9. 6(금)~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 강 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